

학생인턴에 대하여

A Debate on the Subinternship

인턴은 사전적으로는 의과대학 졸업 후 병원에서 조수로 일하는 수련의를 뜻한다(영한대사전, 시사영어사/랜덤하우스, 1991). 따라서 원래는 졸업 후 교육과정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의 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인턴이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기한 소위 서브인턴(Subintern)은 의학기본교육과정(흔히는 의과대학,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중, 즉 졸업 전 의학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인턴과 유사한 수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의학교육계에서는 학생 임상실기 실습을 현재의 견학형 임상 실습에서 참여형 실습으로 전환하여 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시점에서 보다 수준높은 임상실기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를 하였고 그 방안의 하나로 일부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서브인턴 임상실습을 거의 모든 대학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서브인턴제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여 학생인턴이라는 용



김 건 상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어를 쓰기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은 능력 있는 일차진료의사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로서 일선에 투입되어 진료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의학 지식은 충분하나 임상실기 능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의과대

학 졸업생의 임상실기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의사면허시험에서도 현재까지 필기시험만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임상실기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미 연세의대의 정명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의학 교육전문가들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담당자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사면허시험실기시험도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 과정에서 임상실기 실습의 강화와 그에 따른 평가에 대한 것은 의학교육발전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의학교육제도와 관련하여 현재의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과대학을 학사 후 전문대학원

제로 전환하는 정책, 소위 4+4 학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의학교육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학제를 개편하더라도 의학교육 기간은 역시 4년이기 때문에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의학 전 교육 기간이 고등학교 졸업 후 예과 2년에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기간, 즉 4년으로 연장되어 결국 의사를 양성하는 기간만 길어진다는 점, 대학원 학비가 의과대학의 거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교육비가 지나치게 상승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 이공계대학이 인기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한 예비학교로 전락하여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이공계 출신 양성이 더욱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등 여러가지 부작용 등의 이유로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의학전문대학원제를 대단히 강하게 추진하여 왔고, 의학교육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중에 “서브인턴제(학생 인턴제)”를 추진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는 졸업 후 의학교육과정으로서의 인턴을 없이하여 1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턴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학중의 임상실기 실습을 강화하여 졸업생을 일차진료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만 시행하여야 할 제도는 아닌 것이 확실한데, 이를 의학전문대학원에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인턴제의 원래 취지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는 졸업 후에 인턴과정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만일 학생인턴제도가 정착되어 졸업생이 인턴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상실기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논의하여야

할 사항을 미리 거론하여 성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하여 의학교육관련 단체들이 각각 견해를 피력한 바 있고 의학교육 관련단체들의 협의기구인 의학교육협의회(회장 김재정)에서도 의학 교육관련 단체장들의 협의를 거쳐 학생인턴제의 도입은 바람직하나 의학전문대학원에만 적용하는 발상은 옳지 않고 더욱이 이와 연계하여 현행 인턴제를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바 있다.

명칭이 무엇이든간에 의학교육에서 임상실기 실습을 견학형에서 참여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세이며, 임상실기 실습의 강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수료자의 실력을 평가하여 의사면허자격을 주기 위한 국가시험에서 실기 과목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여러가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모습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 과정에서 보여준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러 시도들이 모두 적절하였는가 하는 점에서는 해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하여 교수 정원 증원, 대학지원금, 구조조정, BK 21 사업 등과 얽힌 향간의 여러가지 말들이 마치 전환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턴과 관련하여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하여야 할 일은 우선 전문대학원과의 연계를 고집하지 않아야 하고, 일선 교육기관이 학생임상실기 실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압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하는 일,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형 실습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법적인 어려움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해소 하는 일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일일 것이다. ㉔

E-mail : kunskim@hanafos.com